



[인도자용]

다음세대가 인도하는
행복한 가족예배 11월 첫째 주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1-3]

다음 내용을 따라서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해봅시다.(파란색 글씨를 읽으며 인도하면 됩니다.)

오늘 해야할 일

1. 오늘부터 가족예배가 있는 날까지 매일 저녁 가족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온 가족이 함께 가족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게 해주세요.
2)가족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게 해주세요.
3)가족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 지혜를 주세요.

2. 이번 주간 가족예배 순서자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순서를 알려줍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가족들과 함께 순서를 정합니다.)

[기도] : 가족 구성원이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준비합니다. 순서자가 미리 기도를 준비하도록 인도자가 이야기 해줍니다. 기도내용은 순서지를 따라도 좋고, 순서자가 스스로 준비해도 좋습니다.

[말씀] : 가족 구성원이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준비합니다. 순서자가 미리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자 순서지를 보여주고 준비하도록 합니다.(인도자가 맡아서 해도 좋습니다.)

가족예배 10분전

예배 준비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에게 예배시간이 10분 남았음을 알려주고 함께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시작 10분 전에는 찬송가 연주를 틀어놓고 예배 장소를 세팅하여 가족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이에요.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를 준비해요.]

가족예배 5분전

예배 장소 세팅이 끝났으면 성경책과 순서지를 준비하고 가족예배 장소에 모여서 각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질 가족예배를 준비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사도신경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며 가족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시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기도순서자가(아빠, 엄마, 동생, 나) 기도해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땅에서 구별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기도자가 되어 기도를 준비합니다. 순서지에 있는 내용 또는 기도자가 준비한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함께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반주에 맞추어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음원 파일을 준비해서 보내드립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고전 1:1-3]

- 1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 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 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각 사람이 곧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교회로 세우셔서 마치 초대교회 시절에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듯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등불 같은 존재가 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공동체와 건물로서의 교회로는 한계가 있는 그 사역을 각 개인을 교회로 세우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갖추어야 할 모습을 세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세상이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전혀 구별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교회로서 갖추어야 할 합당한 모습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시고도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돈이나 사람이나 다른 것들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로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가 주님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 앞에서 언제나 가장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곧 교회답게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모두 교회로서의 모습을 잘 갖춘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며, 교회로서 세상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은혜선포

서로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스스로에게도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가족 신앙스토리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읽고 함께 나누어봅시다.

1. 나의 삶 가운데 교회로서 합당한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2. 나의 모습이 세상에 어떻게 비추어지기를 원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족미션

가족들이 출근, 등교, 외출 할 때마다 “당신은 주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라고 인사해주기